



#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 부활 후 제7주일

제1차 세계 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도로테오스 주교순교자  
(제6조, 조과 복음 10)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78~80
- 승천 찬양송 -- 오순절 의식서 77
- 승천 입당송 --- " " 79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 성 교부 찬양송 -오순절 의식서 82
- 성당 찬양송
- 승천 시기송 -- 오순절 의식서 80
- 사도경 : 사행 20,16~18; 28~36  
--- 260, 봉독서 84
- 복음경 : 요한 17,1~13 --- 105
- 승천 축일 성모송 ----- 259
- 승천 축일 영성체성혈송 -- 259
- '우리가 참빛을' 대신 '승천 찬양송'

## 하느님을 품은 교부들

**그** 리스도의 부활 후 일곱 번째 주일인 오늘, 교회는 하느님을 품은 교부들 318명이 함께 모인 니케아 제1차 세계 공의회를 기념합니다.

아리우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부정하고 피조물(被造物)이라고 주장했을 때, 교회는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325년 공의회를 소집하였고, 교부들은 아리우스와 추종자들에 대한 이단 파문이 합당함을 공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며 똑같이 영원하신 분, 똑같이 존귀하신 분으로 선언하고, 신앙의 신조 앞부분 일곱 조항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232명이 주교였고 86명이 사제, 보제, 수도자로서 도합 318명이었습니다. 교부들은 높은 덕망으로 하느님을 위해 헌신했으며, 마음속에는 언제나 믿음의 불길이 타올랐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식지 않았습니다.

#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예** 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는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의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이는 어떤 병이 있었더라도 건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못가에는 항상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었다.

그중에 서른여덟 해나 누워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이미 오랜 기간을 그렇게 누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물으셨다. 그러자 그가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 갑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를 측은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고쳐주셨다. (요한 5,1~9 참조)

그 병자는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삼십팔 년간을 누워있었는데 그가 누워있던 곳은 못에 달려있는 주랑이었고,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 사용되는 통로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그러나 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삼십팔 년간을 그곳에 누워있던 그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생겨난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에덴동산을 걸으며 대화도 나누고 참 사람으로서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하느님을 닮아가는 선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몇몇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점점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던 사람을 가없이 여기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다. 우리에게 참 사람이 가야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지켜본 로마군인 백인대장은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루가 23,48 참조), 즉 ‘이분은 참 사람이셨다’라고 고백하였다.

우리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태어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약하고 병든 사람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과 마주할 때 눈을 감고 피하거나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삼십팔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던 병자와 같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잘 살피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 불신 (不信)

아타나시아 봉사자



**옛** 날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이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 동지를 짓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고,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의 먹이가 되었고, 돼지들의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으므로 이들은 서로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이가 샘이 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있단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네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의 밥이 될 것이야. 이따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니? 그게 바로 밑동이 넘어지려는 징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돼지에게 달려가서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단다.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새

끼를 잡아먹기 위해 이따금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지 않았니?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리는 때란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매와 돼지의 생활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매는 모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면 새끼들이 돼지에게 잡혀 먹힐 것이라 생각하니 꼼짝 못하고 항상 새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돼지도 마찬가지여서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였고, 매와 돼지는 서로를 경계하면서 새끼들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매도 돼지도 굶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 넣어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섯 가지 ~ 거짓 증언하는 자, 형제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자들이다.” (잠언 6,16; 19)



### 주간 예배 안내

\* 6월 11일(토) 오전 9시  
영혼 토요일  
성 바르톨로메오스와  
성 바르나바 사도  
조과, 성찬예배 및 추도식  
- 풀리바 준비하세요.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소식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음식 축제를 연기합니다

오는 6월 12일(오순절 주일)에 열기로 했던 음식 축제가 여러 사정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새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사 랑

성인의 가르침

아토스 성산의  
성 파이시오스  
수도자

온 힘을 다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입니다.

그다음 사명은 모든 형제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합당하게 사랑한다면,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온당한 사랑도 드리지 못할뿐더러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못합니다.

오늘날 어느 누가 타인에 대하여 관심을 보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변명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므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부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는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런 탐욕에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무정하고 냉정한 마음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